

전기차와 야영의 만남...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으로 전기차 편리성 알린다

- 6월 7일부터 8일까지 설악산 국립공원에서 전기차 야영 행사 개최
- 야영 현장을 기록영상으로 제작해 전기차 인식 개선 도모

환경부(장관 김완섭)와 국립공원공단(이사장 주대영)은 6월 7일부터 이틀간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강원도 속초시 소재)에서 전기차와 함께하는 친환경 야영(캠핑)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엘지(LG)헬로비전과 함께 전기차를 활용한 야영의 편리성과 실용성을 경험하고 환경적 가치를 비롯해 무공해차인 전기차의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이동형 전력 공급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차량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Vehicle to Load)’ 기술은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 기기에 공급할 수 있다.

전기차의 이 기능을 통해 전력 기반시설(인프라)이 부족한 야외 환경에서도 조리기기, 조명, 냉·난방기기 등 다양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장에 이동형 충전기를 배치하여 전기차 배터리 잔량이 부족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충전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이동형 충전기의 다양한 서비스 활용 용도를 적극 알릴 계획이다.

아울러 엘지(LG)헬로비전과 협업을 통해 전기차 야영 행사 현장을 기록 영상물(다큐멘터리)로 제작하여 환경부 누리집(me.go.kr) 및 부처 공식 유튜브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전기차 야영 행사는 내연기관차와는 다른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장점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라며, “전기차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어 전기차 이용이 더욱 활발해지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붙임 1. 전기차 야영 행사 개요.
 2. 전기차 야영 행사 포스터.
 3. 전기차 외부 전력 공급 기능(V2L) 기술 및 이동형 충전기 개요. 끝.

담당 부서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책임자	과 장	류필무	(044-201-6880)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1-6884)



□ 행사 개요

- (時/所) '25.6.7(토) 13:00 ~ 6.8(일) 12:00 / 설악산 국립공원 야영장*
-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봉로 25
- (참여기관) 환경부, 속초시, 국립공원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 환경 협회, 한국전기차사용자협회, 현대자동차, 기아, LG헬로비전
- (참여인원) 전기차 캠핑 100팀(모집), 일반 캠핑 100팀(일반추첨) 약 500명
- (슬로건) “캠핑은 즐기고, 환경은 지키고, 미래는 밝히고”

□ 주요 프로그램

일시	시 간		주 요 내 용
6.7(토)	13:00~	상시	• 전시, 홍보, 체험관 운영
	14:30~15:00	30'	• 개막식
	15:00~15:30	30'	• 레크레이션 이벤트
	15:30~17:00	90'	• EV캠핑 노하우 강연
	17:00~18:30	90'	• 마술 & 버블쇼
	18:30~20:00	90'	• 저녁식사
	20:00~21:30	90'	• 낭만 음악 콘서트
6.8(일)	08:00~09:00	60'	• 줍깅 행사
	09:00~10:30	90'	• 도전 환경골든벨
	10:30~11:30	60'	• 레크레이션 이벤트, 공모전 시상
	11:30~12:00	30'	• 정리 및 종료



□ 전기차 V2L(Vehicle to Load) 기술

- 전기차 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를 외부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



□ 이동형 충전기

- 전기차 이용자가 시간, 장소 제한없이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이동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팩, 이동기기를 충전기로 활용

